

일제강점기 부산지역 화재발생과 부산소방조의 활동 — 1920~1930년대를 중심으로 —

김 상 욱*

| 목 차 |

- I. 머리말
- II. 부산지역의 화재발생 추이와 양상
- III. 부산소방조의 조직 정비
- IV. 예방활동과 화재진압
- V. 맺음말

| 국문초록 |

1876년 개항이 이루어지면서 부산은 한국 최고의 무역항이며 경성 다음의 도시로 성장하였다. 부산의 인구가 늘어나고 시가지가 팽창해지면서 부산에도 화재가 다발하였다. 1920년대 들어 부산지역의 화재로 인한 소실피해는 일본인들이 한국인들 보다 월등이 많았다. 부산 거주 일본인들은 미곡관련 정미업, 식료품 등 다양한 제조업에 종사하였다. 따라서 화재로 인한 피해 또한 증가하였다.

화재로 인한 소실피해가 늘어가면서 빈발하는 화재에 대하여 부산소방조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였다. 첫째로는 소방조의 조직정비였다. 부산소방조는 1920년대 들어서 소방장비를 확충하고 조직을 본부체제 아래 5부로 정비하였다. 상비소방

* 국립목포대학교 지방사학과 박사과정 / dan3636@hanmail.net

수도 각 部에 배치하였다. 그러나 부민들이 기부한 출초식 축의금으로 소방장비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소방조 간부들의 부정축제가 있었다. 이는 소방조 간부들의 퇴진과 구속으로 이어졌다. 소방조 간부들의 축의금 횡령사건은 부산소방조 인적 쇄신의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 화재예방 훈련 및 화재발생에 대비한 대응훈련을 강화하였다. 예방활동은 화재발생을 억제하는 활동이었다. 출초식은 연초에 실시되는 소방조의 중요한 행사였다. 출초식을 통하여 소방조는 그해 활동의지를 다짐하였다. 봄·가을 실시되는 춘·추계 소방훈련에는 소방조원들은 자동차펌프를 활용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 매년 겨울철에는 시행되는 ‘방화데이’에는 불조심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다.

화재가 발생하면 부산소방조는 신속한 현장대응활동도 전개하였다. 부산소방조는 망루감시와 공중전화, 화재보지기를 통하여 화재를 탐지하였다. 화재발견시 상비소방수들은 신속하게 자동차 펌프에 탑승하여 출동하였다. 그러나 부산소방조의 화재대응활동은 본정을 중심으로 한 일본인 거주지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최신장비도 일본인 거주지에 배치되었다.

주제어: 소방본부, 출초식 축의금, 소방장비, 방화데이, 망루감시, 화재보지기

I. 머리말

화재는 인간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하는 연소 현상이다.¹⁾ 불은 인간의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통제되지 못한 불은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재앙이 되었다. 따라서 불을 경계하고 방어하는 노력은 어느 시대애나 존재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화재발생 양상이 변화된 것은 1876년 개항이후부터이다. 부산, 인천 등 개항장에 일본인 거주가 증가하고 일본식 건물이 밀집되면서 화재의 연소상태도 복잡해졌다.

1) 소방청 훈령,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조 2018. 4. 3.

본고는 1920-1930년대 부산지역의 화재발생과 부산소방조의 소방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최초의 개항장이면서 경성 다음의 도시였던 부산은 ‘한국과 일본의 架橋’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무역항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개항 이후 한국은 일제의 경제적 침탈부터 국권피탈에 이르기까지 자주권에 심대한 소상을 입었다. 일제의 한국에 대한 억압통치와 수탈은 시기마다 방법을 달리하며 심화되었다.

특히 1920-1930년대는 일제가 한국에 대한 식민통치체제를 정립하면서 수탈과 탄압을 강고히 하던 시기였다. 더불어 ‘회사령’이 철폐되면서 제조업 및 생산시설도 증가하였다. 1930년대에 일제는 불황경제를 타파하기 위하여 한국을 원료생산지와 소비시장으로 만들어갔다. 이 시기 부산지역도 시장, 극장, 백화점 등 화재에 취약한 다중시설이 증가하였다. 또한 방적공장부터 중화학 공장에 이르기까지 제조업 공장이 늘어났다.

이러한 요인으로 1920-1930년대에는 부산을 비롯한 전국에 화재가 빈발하였다. 화재가 빈발하면서 부산소방조는 5부로 조직을 편제하고 본부를 만들어 지휘체제를 가다듬었다. 자동차펌프를 도입하여 현장소방활동을 강화하고 상비소방수를 증원하였다.

1920년-1930년대 화재발생과 소방조의 활동이 치열했음에도 지금까지 이러한 활동을 분석하고 조명한 성과는 미흡하였다. 일제강점기 소방조의 활동과 화재에 대한 연구는 목포, 군산, 대전을 중심으로 지역소방조 활동을 규명한 연구²⁾ 경성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방제도³⁾를 연구

2) 군산소방조에 관한 연구는 김봉삼, 『일제시대 군산의 화재발생과 소방활동』,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원영급, 『韓末・日帝強占期 群山消防組의 組織과 活動』, 군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김상욱, 『일제강점기(1910~1939) 공설 군산소방조의 결성과 활동』, 『전북사학』 50, 2018. 목포소방조에 관한 연구는 김상욱, 『한말·일제강점기(1899~1929) 목포소방조의 결성과 활동』, 『역사학연구』 34, 2008. 대전소방에 관한 연구는 김상욱, 『일제강점기(1910~1939) 대전소방조의 결성과 활동』, 『한국민족운동사학회』 96, 2018. 등이 있다.

한 두 갈래의 연구성과를 일구어 냈다. 그러나 이것은 ‘호남지역의 소방조활동’에 관한 연구라는 아쉬움을 주었다. 한국 최초 개항도시라는 상징성과 영남최고 도시인 부산의 화재와 소방활동에 대한 분석은 미흡하였다. 따라서 1920-1930년대 부산지역의 화재와 소방조 활동에 관한 고찰은 일제강점기 부산은 물론 경남지역 소방활동 부분까지 규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제강점기에 편찬된 화재와 소방조에 관한 다양한 기록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1920-1930년대 부산지역에 화재에 관한 기록은 많지 않다. 부산이 전국에서 경성 다음의 도시였음에도 다른 지역처럼 소방조에 대한 沿革史나 기록을 남기지 못하였다.⁴⁾ 다행히 ‘朝鮮消防協會’에서 간행한 월간지 『朝鮮消防』의 특집에서 부산소방의 통계와 활동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또한 『부산일보』⁵⁾에서 화재발생과 소방조활동을 상세히 보도하였기에 본고에서는 『朝鮮消防』의 기록과 『부산일보』의 기사를 토대로 본 논문을 진행하겠다. 추가적으로 소방조와 관련된 인물과 기록 등은 관보와 인물 사전 등을 참조하였다.

1920년·1930년대 부산지역의 화재발생 추이와 양상이 그려지고, 부산소방조의 조직 정비와 예방활동과 화재진압이 그려진다면 1920-1930년대의 부산지역의 화재발생과 소방조의 소방활동을 어느 정도 규

-
- 3) 경성지역과 소방제도에 관한 연구는 이재선, 『日帝強占 前半期(1910~1925) 消防運營體系的 변화와 消防署의 設立』,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염복규, 『일제하 경성지역 소방기구의 변화과정과 활동양상』, 『서울학연구』 49, 2012. 강경구 『일제하 경성소방서의 설치와 운영』, 수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김상욱, 『일제강점기 소방기구의 변천과 역할』, 『한국행정사학회』 43, 2018. 등의 성과가 있다.
- 4) 秋山忠三郎, 『群山消防組發達誌』, 群山消防組, (1927). 木浦消防組, 『木浦消防沿革史』, (1929). 加藤機三郎, 『光州消防二十年史』, 1933, 8쪽. 田邊無聲, 『大田消防の沿革』, 1933.
- 5) 『부산일보』는 일제강점기 부산지역의 일본인의 활동을 중심으로 보도한 신문이었다.

명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서 일제강점기 전국의 화재양상과 소방조의 활동까지도 유추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II. 부산지역의 화재발생 추이와 양상

1. 화재발생 추이

1876년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병자수호조규’ 로 인하여 ‘부산 일본제국 전관거류지’가 설치되었다. 1877년 1월 30일에는 홍우창(洪祐昌) 동래부사와 곤도 신스키〔近藤眞鋤〕 일본 관리관이 ‘부산구 조계조약’을 조인하였다.⁶⁾ 그 결과 용두산을 중심으로 초량왜관 11만평이 ‘부산일본전관거류지’로 설정되었다. 일본거류지에는 관공서 및 점포들이 들어섰는데 1876년 11월 일본우편국의 설치, 1878년 1월 제일은행 부산지점 개설, 1879년 10월 館守倭家⁷⁾에 일본영사관, 경찰서와 은행도 개설되었다. 1905년 까지 병원, 신사, 극장, 유곽까지 들어서면서 마치 일본의 도시 같은 거주지가 조성되었다.⁸⁾

일본인들은 전관거류지 주변으로 토지를 사들이고 거주지를 확대하였다. 1901년에는 거주지에 일본식 명칭을 정하였다.⁹⁾ 1906년 7월 31일에는 부산이사청령 제8호, 1907년 3월 2일에는 부산이상청령 제2호, 1908년 9월 18일 부산이사청령 제6호로 각각 변경하여 그들의 생활구역을 거류지 외부로 확대하였다.¹⁰⁾

6) 최덕수, 『조약으로 본 한국근대사』, 열린책들, 2010, 34~35쪽.

7) 일본 우두머리가 거처하는 관청

8) 柑澤仁助, 『釜山港勢一斑』, 日韓昌文社, 1905. 1~3쪽.

9) 大廳町, 寶水町, 富平町, 大新町, 富民町 등이다.

10) 金容旭, 『釜山築港誌』, 『항도부산』 2, 1963, 51~153쪽.

1921년 ‘시구개정’은 일본인들의 草梁町, 左川町, 凡一町 지역에 대한 공장 등을 설계하면서 시작되었다. 시구개정¹¹⁾이라는 명목 아래 한국식 기와집, 초가집은 철거되고 대신 일본식 점포가 들어섰다.¹²⁾

부산의 외형적 성장은 한일인의 거주여건 차별을 심화시켰다. 한국인의 거주는 동래와 부산진에 집중되었다. 토지를 빼앗긴 농민들이 부산에 유입되면서 한국인들은 점차 일본거류지를 향해 나아갔다. 1923년 8만의 부산인구 중 ‘일본 전관거류지’에 12%가 집중되었다. 일본인 거주는 도심에 집중되었고 변두리에는 한국인이 거주하는 형세였다. 산비탈 거주 한국인은 도시의 토막민이 되었다.¹³⁾

<표 1> 1920·1930년대 부산지역 화재발생

연도	한일인	건수	건수 합계	손해액	손해합계
1920	한일인		29		10,000
1921	한일인		24		280,000
1922	한일인		63		538,401
1923	일본인	29	58	3,36393	365,868 원
	한국인	29		29,475	
1924	일본인	37	75	332,435	340,473
	한국인	38		8,038	
1925	일본인	34	71	103,557	106332
	한국인	37		2,775	
1926	일본인	45	85	70,508	72,470
	한국인	40		1,909	
1927	일본인	52	93	208,149	210,546
	한국인	41		2,397	

11) 釜山府, 『釜山府勢要覽』 1922, 89쪽. 朝鮮總督府 內務部 土木課, 『朝鮮港灣要覽』, 1931, 155~156쪽.

12) 釜山府, 『釜山府勢要覽』 1922, 89쪽.

13) 『동아일보』 1933.3.28.

연도	한일인	건수	건수 합계	손해액	손해합계
1928	일본인	47	99	32,437	34,342
	한국인	52		1,895	
1929	일본인	57	118	495,272	560,305
	한국인	61		65,033	
1930	일본인	41	78	352,592	380,416
	한국인	37		27,824	
1931	일본인	60	121	544,886	564,011
	한국인	61		19,125	
1932	일본인	52	116	178,062	114,803
	한국인	64		71,240	
1933	일본인	48	136	71,086	114,803
	한국인	88		43,717	
1934	일본인	51	126	159,474	178,032
	한국인	75		11,358	
1935	일본인	40	95	253,194	369,415
	한국인	55		16,221	
1937	한일인		81		92,114
통계	일본인	593	1271	6,163,195	6,464,202
	한국인	678		301,007	

참조: 朝鮮消防協會, 『朝鮮消防』8卷10號, 1936, 73-74쪽.

<표 1>은 1920년-1937년에 발생한 부산의 화재 집계표이다. 부산지역의 화재발생은 1920~1930년에 빈발하였다. 화재빈발의 직접적인 영향은 인구의 증가였다. 1915년 부산인구는 6만 이었으나 1925년 10만, 1936년 20만을 넘어섰다. 지정학상 부산은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였기에 일본인의 부산정착이 활발하였다. 따라서 1910년 2만에 불과하던 부산거주 일본인은 1920년에는 3만 3,085명, 1930년에는 4만 4,273명, 1940년에는 54,266명으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1910년 부산거주 일본인의 3배 증가였다.

1925년 경남도청의 부산 이전으로 부산거주 인구가 10만명이 되면서 부산은 영남 최고의 행정 및 상업도시가 되었다. 1920년-1930년대 한국인의 급격한 증가도 이루어졌는데 일제의 농촌수탈로 토지를 잃은 농민들이 공장 직공과 부두노동자가 되기 위하여 부산으로 유입하였다.

1920년대 화재발생은 부산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예컨대 1917년 전국의 화재건수는 474건(재산피해 652,154원), 1918년 445건(1,340,456원) 1919년 532건(1,979,188원) 1920년 417건(1,833,401원) 1925년 618건(2,923,600원) 1930년 872건(3,724,059원) 1935년 682건(3,353,957원) 1940년 641건(1,8756,519원)으로 화재피해는 1910년대보다 1920년대 들어서 확연히 증가하였다.¹⁴⁾

<표 1>의 1920년대 부산의 화재발생은 29건이었지만 1935년의 화재발생은 95건으로 약 3배 증가하였다. 재산피해는 1920년에 1만원이었지만 1935년 36만 9,415원으로 1920년의 36배로 늘어났다. 1923년 화재발생은 58건, 1935년의 화재건수는 95건으로 161% 증가하였다. 그러나 화재소실 피해는 1923년 339,756원에서 1935년 369,415원이었다. 가뭄으로 인한 화재피해도 증가하여 1929년의 소실피해는 560,305원으로 일제강점기 중 가장 많았다. 그해 5-6월 지속된 가뭄으로 부산지역의 식수가 중단되면서 화재발생시 소화전의 사용도 불가능하였다.

1931년에는 화재발생 121건에 소실피해액은 564,011원이었다. 1931년 화재급증은 1929년부터 세계를 휩쓴 ‘昭和恐慌’이었다.¹⁵⁾ 공황으로 인한 불황의 그림자가 부산경제를 짓누르면서 1929, 1930, 1931년의 화

14)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5) 1927년의 금융공황으로 시작해 1929년의 세계공황을 거쳐 1930~31년에 최고에 달한 일본 쇼와 시대 초기의 일련의 공황을 얘기한다.

재 피해는 1504,732원으로 18년간의 화재피해액 육백만 원의 4분의 1이 3년 동안에 발생하였다.¹⁶⁾

한국인과 일본인간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 격차도 심화되었는데 한일 인간의 경제력 차이가 원인이었다. 1920-1930년 부산거주 일본인 비율은 30%였지만 1923-1935년 소실피해는 일본인 6163,195원에 한국인은 301,007원으로 일본인 피해액은 한국인의 20배였다. 1923년-1935년 일본인 화재건수는 593건, 한국인 화재건수는 678건으로 일본인의 화재발생은 한국인 화재에 비해 87%였지만 소실피해는 일본인 6.163.195원, 한국인 301.007원으로 일본인은 한국인의 20배였다.

적어도 화재발생 건수만 놓고 보면 한국인과 일본인의 화재발생은 1930년까지는 비슷한 추세였다. 그러나 1932년부터 일본인 52건, 한국인 64건, 1933년 일본인 48건, 한국인 88건, 1934년 일본인 51건에 한국인 75건으로 한국인과 일본인의 격차가 늘어났다. 부산거주 한국인의 증가로 한국인의 화재건수는 늘었지만 일본인의 소실피해가 많다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한일인의 경제력 차이가 심화되었다는 의미였다.

1910년대 부산경제의 주요업은 정미업과 식료품이었다. 부산의 미곡이출이 활발하였기에 미국을 도정하는 정미업, 양조업, 주조업, 간장 등 식료품업이 발달하였다. 그러나 1927년 이후에는 제지업, 인쇄업 등의 경공업과 요업, 조선업, 철공업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1930년대 중반에는 기계, 철공업, 조선업, 화학공업 등 중화학 공업이 급성장하였다.¹⁷⁾ 이러한 제조업의 성장은 일본실업인들이 주도하였다.

16) 극심한 경제난은 실업율을 높였으며 빈곤의 늪을 헤엄치게 하였다. 실업자들은 거리로 나섰으며 불안한 사회적 심리를 반영하듯 흡연으로 인한 실화가 늘고 사회적 불만은 방화로 연결되었다.

17) 釜山府, 『釜山商工案内』, 1932, 12쪽.

<표 2> 1931·1933년 부산지역 공장 수 통계

공업	연도	일본인 공장수		한국인 공장수		공장수 합계	
		1931	1933	1931	1933	1931	1933
방직공업		12	12	3	3	15	15
금속공업		21	20	2	4	23	24
기계제조업		41	56	2	2	43	58
요업		14	16			14	16
화학공업		9	11	3	3	12	14
제재 목재		30	32	2	1	32	33
인쇄업		14	15	4	4	18	19
식료품		118	105	31	27	150	132
전기업		1	1			1	1
기타		24	30	1	3	25	33
합계		284	298	49	49	333	347

참조: 釜山府, 『釜山商工業內』, 1932-1934쪽.

<표 2>는 1930년대 제조업에서 한국인과 일본인의 현황이다. <표 2>에서 한국인 공장은 일본인 공장의 약 17% 정도이다. 한국인은 식료품업, 인쇄업에서, 일본인들은 식료품과 금속공업, 기계기구 공장운영이 많았다. 부산에서 일본인들의 제조업 및 공장운영은 한국인에 비하여 압도적이었다. 한일인 제조업의 격차가 늘어나면서 화재로 인한 일본인들의 재산피해도 증가하였다.

2. 화재발생 양상

일제강점기 화재발생과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조의 활동은 사회적 관심거리였다. 따라서 소소한 화재도 신문은 소상하게 보도하였다. 그러나 화재로 인한 소실피해에 대한 기준은 신문마다 주관적이었다. 따라서 어느 정도를 ‘대형화재’로 볼 것인지는 신문마다 자의적이었다. 가

령 서울, 부산에서는 만원 이상의 피해를 대형화재로 판단하였지만 소도시에서는 몇 천원의 피해도 대형화재로 보았다.¹⁸⁾

따라서 본고에서는 1920-1939년까지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중 재산피해 일만 원 이상, 한명 이상의 燒死, 보험금을 노린 방화, 세 채 이상의 주택 소실. 이밖에 특수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화재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기준 아래서 파악된 화재는 부산에서 어렵잡아 55건에 이르렀다.

<표 3> 1920-1939년 부산지역 화재발생 현황

연번	발생일	대상	위치	원인	소실재산
1	1922.4.19	塚本權之助 위험물 제조소	富平町 일정목	화약폭발	두 채 소실5명 즉사, 8천원
2	1922.5.19	福榮商會倉庫	매립新町		18채 소실,10만원 손해
3	1922.9.6	鈴木商店	牧島		창고3채 전소, 식림사십만근 전소
4	1923.3.22	釜山座劇場	富平町		16호 전소, 8호 반소 극장주 소사
5	1923.3.16	松岡伊八 양털공장	富平町	화롯불	11호 전소, 아동1명 소사, 9천원
6	1924.11.19	大命丸	항구방과제	종선실 화재	석유 천상자, 1만원
7	1926.5.16	安川榮次郎	幸町	수도 단수	5호 전소
8	1923.8.7	文末根주택	草梁町	수도 단수	2호 전소, 4호 반소, 2만원
9	1929.6.16	경부선화물칸	부산정거장	화재	화물 2만원
10	1930.1.22	參菊菊次郎 인쇄공장	草梁町	실화	3천원
11	1930.3.25	최태현 포목점	本町이정목		1동 2호, 1만원
12	1931.2.9	丸大고무공장	부산진	방화	
13	1931.10.13	초량 공설시장	草梁町	보험 방화	가재 300원

18) 제45조에서 대형화재는 인명피해 사망 5명 이상이거나 사상자 10명 이상 발생화재 또는 재산 피해 50억원 이상 추정되는 화재를 말한다. 소방청훈령, 「화재조사 및 보고 규정」 제45조. 2018. 4. 3.

연번	발생일	대상	위치	원인	소실재산
14	1931.10.17	富田省三 주택	草梁町	소외양간	소5두, 세 체 1만원
15	1932.1.24	음식점	榮町오정목	온돌 과열	8동 8호, 63,000원
16	1932.2.12	福田陽雄 주조장	西町일정목	굴뚝 발화	1동 1호 전소, 日酒 70石, 1만원
17	1932.3.3	大地여관	本町		양옥 1동 전소, 2만 3천원
18	1932.7.12	安尙必	牧島	모기장발화	1동2호 전소, 모자 소사
19	1932.10.22	朝鮮製網會社	牧島	창고 방화	전소3호6동, 반소2동, 발동기선3척 소실, 25만원, 한국인200명 실직, 宇都宮造船所, 網野造船所大, 地精米所전소, 연소1천평.
20	1932.11.3	朴春今 음식점	谷町	방화	2동 3호 전소
21	1932.12.9	佐竹打綿 공장	谷町		공장2호 소실, 2만원, 조선인 20명 실업
22	1932.12.20	金仁壽 蓬萊旅館	大倉町		蓬萊旅館, 興新精米所 소실
23	1933.1.30	漢永根千歲 자전거	大昌町	방화	肥前商會, 眞木運送店, 中村禮作, 上野忠三郎, 星 野政太郎 주택 연소, 3만원
24	1933.2.14	三田 製材所	牧島	실화	공장 창고 13동 전소, 3만원
25	1933.3.11	田中조선소 鮮光丸	牧島	용접	석유30톤 카바이트 50관 소실, 3천원
26	1933.3.7	望月樓	録町	유과	梅歌유과, 品川 이발관 3호 전소 5만원
27	1933.5.21	朴萬守 주택	大新町	방화	
28	1933.5.28	鼠村芝介 제제소	嶺仙町牧島	방화	1만원,
29	1934.1.11	金宣石 주택	草梁町	보험 방화	5호 전소, 1만원
30	1934.1.15	加藤 창고	釜山鎮 海岸通	방화	창고 전소, 7만원
31	1934.3.2	朴喜模 주택	中島町	아궁이	5호 전소, 1500원
32	1934.4.14	近奇丸과 弘丸선박충돌	부산근해	선박충돌	1만원, 1명 燒死

연번	발생일	대상	위치	원인	소실재산
33	1934.2.16	加藤정미소	水晶町	석유방화	3동 324평 소실, 화재 7만원.
34	1934.9.13	四朝의 창고	牧島通		15,000원 손해
35	1935.4.26	崔乃順 여관	일한시장		5동5호 소실, 6천원
36	1935.5.28	복산상회소속 明朱丸	福山町소재	폭발	5명 소사, 3만원
37	1935.8.11	大地鶴組店 잡곡창고	大昌町	담뱃불	2만원
38	1936.3.26	초량정 17번지 鄭有浩 빵집	草梁町	발효기 과열	8동 17호 전소, 1만 3천원
39	1936.4.1	화물선 浦島丸	부산대교	램프인화	석유 1천통 소실, 1천 5백만 손해
40	1936.8.1	大島綿布會社 工場	釜田里	건조실 과열	공장 전소 2만 6천원 손해
41	1937.8.16	李原萬 고용인	水昌町	휘발유 실화	전소 14동 반소 14동 38동 소실, 1만원 손해
42	1937.10.9	朴明水光明大 木商	榮町3정목	실화	12,000원 손해
43	1937.10.19	水谷 목공장	西町	실화	6동 10호 전소 2만원
44	1937.11.23	부산 공설시장	영주정	방화	270평 전소, 2만5천원
45	1937.12.6	高橋正一 가구상	寶水町	화로 실화	5동 10호 전소, 1만원
46	1937.12.15	金炳文 제면공장	凡一町	기계 마찰	5동4호 전반소, 4천5백원
47	1938.1.6	金比羅丸 면화선	蔘田會助店	실화	25만금, 1만원
48	1938.1.7	세공상 이성구	瀛州町	촛불 실화	소아 1명 화상, 8호 전반소,
49	1938.1.13	화물창고	大昌町	실화	창고 전소, 5만원
50	1938.1.13	大松장유공장	寶水町		공장 2동 전소 3천원
51	1939.2.15	崔陽浩주택	草場町3 정목	아궁 실화	22호 전소

연번	발생일	대상	위치	원인	소실재산
52	1939.4.5	朴大根주택	瀛仙町	온돌 실화	24호 전소, 1,800원 손해, 이재민110명
53	1939.5.3	제약공장	牛巖里	석유 탱크	목조 350평, 건물 3만원, 상품 10만원 총13만
54	1939.5.10	東信助商店	瀛仙町		가마니 2만원 소실, 창고 1동 140평 소실
55	1939.12.4	철도사무소 창고	草梁町	휘발유	철도수 5명 중상

참조: 『부산일보』, 『동아일보』, 『조선중앙일보』.

<표 3>에서는 1920-1930년 화재와 1931-1939년의 화재를 나누어 살펴 보았다.¹⁹⁾ 1910년대 일제가 추진한 ‘토지조사사업’으로 농지를 수탈당한 농민들은 부산항의 노동자가 되었다. 아울러서 부산항의 시설공사와 매축공사로 노동인구가 항만으로 유입²⁰⁾ 되면서 1920년대에는 화재가 빈발하였다. 1920년-1930년 발생한 11건의 화재는 주택 2, 공장 2, 점포 2, 선박 1, 열차 1, 위험물 1, 창고 1, 극장 1건 이었다. 1920년대의 주택, 극장, 점포, 열차화재 다발은 부산지역 화재가 아직 생활밀착형 화재였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공장 및 위험물 화재가 많아진 것은 부산이 점차 경공업 및 제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공장지대가 생업의 주요한 무대되었기 때문이다.

화재를 지역별로 보면, 富平町 3, 草梁町 2, 幸町 2, 本町 1, 牧島 1, 기차1, 선박1 순이었다. 富平町, 谷町, 幸町, 西町, 草梁町 등은 일본인 거주비율이 높은 지역이었다. 특히 草梁町과 富平町은 ‘일본전관거류지’로 일본인들이 주로 거주하였기에 일본인 점포 및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19) 본고에서 부산지역의 화재의 발생양상을 두 단계로 나누는 것은 1920년대의 화재발생과 1930년대의 화재특성을 차이점을 두고 밝히기 위해서다.

20) 박봉선, 「인구문제와 인구정책」, 한얼문고, 1972, 228쪽.

화재원인은 주택 및 집포에는 온돌과 열 및 화로, 아궁이 화재가 많았다. 특히 牧島에는 화약 사십만근이 저장된 창고와 대형 탱크를 저장한 제품창고가 발화되어 25만원의 손해와 한국인 200명이 실직하였다. 목도에는 宇都宮造船所, 綱野造船所, 大地精米所 등이 전소하여 이 지역에 조선소 및 대형창고 등이 빼곡하게 들어섰다. 가뭄이 심했던 1923년 1926년에는 일본인 거주지인 幸町과 草梁町은 수도 단수로 인하여 소화전 사용이 불가능하였기에 건조한 날씨에 화재가 맹렬하게 번졌다.

제조업의 변화는 1920-1930년대 부산지역 화재발생의 성격을 변화시켰다. 1920년대와 1930년대 부산의 제조업은 업종별로 변화되었다. 1920년대는 공장 수 186개 중 식료품 음료 공업이 103개로 55.4%였다.²¹⁾ 그러나 1939년에는 공장수가 1920년에 비하여 2.3배가 증가하여 421개였으며 업종도 다양화 되었다 1920년 절반 이상이었던 식료품, 음료업은 25.4%로 낮아졌으며 금속공업도 14.5%에서 6.2%로 감소되었다. 대신 공업화 정책으로 1920년에 5개(2%)에 불과하던 기계공업은 1939년에는 69개(16.4%)를 늘어났다. 아울러서 고무, 제지, 피혁 공장도 늘어났다.²²⁾

1931년-1939년까지 부산의 주요화재는 44건으로 1920년대의 11건에 비하여 400%가 증가하였다. 1925년 경남도청이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부산인구는 10만을 돌파하였다.²³⁾ 이후 1936년 4월 1일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과거 동래군에 속했던 西面 일대가 부산부에 편입되면서 부산진구에 부산부 출장소가 설치되었다.²⁴⁾ 따라서 부산인구는 20만으로

21) 김철권, 『개항기 일제강점기의 부산사가지의 변천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37쪽.

22) 釜山市, 『釜山の商工業』, 1965.

23) 『每日申報社』 1924, ‘慶南道廳의 移轉, 敏活을 圖코자 부산부로, 晋州 발전에 지장은 斷無’. 『朝鮮新聞』 1925.4.18., ‘慶南道廳移廳式, 釜山の天地は歡樂の巷と化し未曾有の大盛況’.

두배 증가하여 서울 다음의 도시가 되었다. 부산거주 일본인도 증가하여 1920년에는 3만 3,085명이었던 것이 1930년에는 44,273명으로 증가하였다.²⁵⁾

1931년에서 1939년까지 발생한 화재를 살펴보면 공장 7, 시장 2, 주택 5, 유곽 3, 주조장 1, 여관 3, 주택 3, 점포 6, 목재소 4, 선박 5, 창고 4, 정미소 1, 철도사무소 1건이었다. 특히 공장 7개소의 화재는 1930년대 공업화에서 비롯되었다. 1930년대 들어서 영도를 중심으로 선박 및 제조업의 발달로 인한 공장이 들어섰고 공장화재도 다발하였다.

1930년대 선박화재는 5건이었는데 무역항인 부산의 특성상 화물선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곡물창고 화재도 연달았으며 이는 곡물이출항이었던 부산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아울러서 목재, 제제소, 가구공장의 화재는 부산의 활발한 건설경기와 관련이 있다.²⁶⁾

지역별 화재는 부산진 1, 草梁町 5, 榮町 2, 서정 2, 本町 1, 牧島 5, 谷町 2, 大創町 4, 錄町 1, 大新町 1, 瀛仙町 3, 부산진 1, 中島町 1, 부산근해 1, 水唱町 2, 시장 1, 福山町 1, 선박 1, 金田里 1, 瀛州町 1, 寶水町 2, 범일정 1, 선박 1, 초량정 1, 영주정 1, 牛岩里 1건이었다. 당시 大創町, 錄町, 瀛仙町, 大新町에는 일본인거주가 90% 이상이었다. 1930년대는 한국인들의 부산이주가 늘어나면서 우암리, 부전리 등 인근 면지역으로 부산 시가지가 확대되었다. 따라서 1930년대 부산지역 화재는 일본인 거주지뿐 아니라 한국인 지역에도 많이 발생하였다.

유곽이 집중된 錄町에서도 1933년 3월 7일 화재가 발생하였다. 牧島가 공장지대로 부상하면서 공장 근무하는 한국인 거주도 증가하였다. 牧島에서는 1933년 2월 14일 공장창고 화재, 1933년 3월 11일 용접작업

24) 김철권, 앞의 논문, 1998, 29쪽.

25) 釜山府, 『釜山府勢要覽』 1921~1932, 참조.

26) 釜山市, 위의 책, 1965.

으로 인한 석유화재, 1934년 9월 13일 사조창고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것은 공장지대인 목도에 공장 및 창고가 많이 들어차기 때문이었다.

1930년대 화재의 특성은 한국인 거주지는 주택화재가 많았고, 일본인 거주지는 공장, 창고 등 대형 건물화재가 많아서 소실피해도 많았다. 1939년 4월 5일 박대근의 주택에서 화재로 인해 24호가 전소되어 극빈한 한국인 110명이 거리로 내몰리면서 이재민이 발생하였다.²⁷⁾ 한국인거주지 화재는 생활습관에서 비롯되었다. 한국인들은 겨울철 난방을 온돌과 굴뚝에 의존하였는데 이는 고타쓰²⁸⁾를 사용하는 일본인과는 비교되었다. 따라서 한국인 주택은 굴뚝과열로 화재가 다발하였다. 빈민가의 한국인들은 주택 한 채당 여러 세대가 성냥갑처럼 밀집하여 거주하였기에 더욱 한 채 화재에도 많은 소실피해를 입곤 하였다. 같은 규모의 화재도 한국인들이 체감하는 소실피해는 일본인보다 훨씬 큰 것이었다.

1930년 들어 일본인은 물론 한국인 점포들까지 화재보험 가입이 일반화되면서 일확천금을 노린 보험방화도 기승을 부렸다.²⁹⁾ 또한 공장 작업실의 휘발유, 석유과열로 인한 화재도 많았다. 실내화재와 촛불화재, 용접이나 기계마찰, 기관실 발화 등 작업 부주의로 인한 화재도 발생하였다. 1930년대 양조업, 간장업, 식료품 등 일상업에서 중화학으로 제조업의 축이 옮겨가자 부산의 화재발생 추세도 변화되고 있었다.

27) 『동아일보』 1939.4.5., ‘釜山瀛仙町에 大火災 人家二十三戶全燒 전부가 세궁민으로 가두 방황 百餘災民救濟渴望’.

28) ことつ[火燵, 炬燵]은 일본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겨울철 난방으로 이불을 씌운 화로이다.

29) 『조선중앙일보』 1935.6.8., ‘방화보험 사기자에 최고 6년 판결, 거 6일 부산법원서’. 『조선중앙일보』 1933.5.30., ‘부산 영선정 大火, 집 두채와 공장 전소, 이십 팔일 오전 세시 경에, 방화 혐의로 취조중’. 『동아일보』 1939. 11.1., ‘貧困하다 욕한다고 自己教室에 放火 海雲臺小學校 放火事件後聞(釜山)’. 『동아일보』 1939.6.11., ‘싸흠 분푸리로 放火타 被逮 犯人北釜山署서 嚴調’.

Ⅲ. 부산소방조의 조직 정비

1. 소방조의 구성과 편제

‘부산소방조는 개항 다음해 1897년 10월 야또지 나오키치 [八頭司直吉] 를 조두로 목수, 미장이, 톱장이, 대장장이, 桶屋³⁰⁾ 등 조원 50명이 조직되었다.

소방장비는 腕用 펌프 1대와 소방조를 상징하는 깃발, 쇠갈고리, 刺股³¹⁾, 도끼, 네덜란드제 수통 등이었다. 1902년 11월 南濱 일대의 큰 불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면서 1905년 12월 부산소방조는 황실에서 하사한 ‘恩賜金’으로 증기펌프 2대를 구입하였다.³²⁾ 이어서 완용펌프 4대, 손으로 끄는 水管車 5대도 구입하였다. 1901년 4월에는 영사관 명령 제 2호로 ‘부산항 일본소방조규칙’이 제정되어 소방활동의 근거 규칙이 마련되었다.³³⁾

부산소방조의 기틀을 잡은 이는 1906년 부산이사관으로 부임한 마쓰이 시게루 [松井茂] 였다. 마쓰이는 소방에 대한 해박한 식견과 이론을 갖춘 인물이었다.³⁴⁾ 그는 부산소방조를 1907년 공설소방조로 개편하였다. 이어서 8월 소방조원이 150명으로 늘어나면서 새 조두에는 거류민단 의원이자 상업회의소 의원인 나카무라 도시마쓰 [中村俊松] 가

30) 통바치: 통, 우물 벽등을 만들거나 통 등의 수리를 하는 사람이나 집, 수리공

31) 사스마타: 나무로 만든 긴 막대 끝에 날카로운 반달 모양의 쇠 장식을 단 무기

32) ‘恩賜’란 국가의 대사사나 각종재난이 있을때 왕의 은혜라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하사하는 행위였는데 특히 화재로 인한 재난에 고종 순종 연간에 배출여졌다. 김인호, 『고종순종시기 恩賜제도 운영실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6, 2018쪽.

33) 釜山商業會議所, 『釜山要覽』 1912, 95쪽.

34) 松井茂는 통감부 경무국장을 역임하였으며 1906년 8월25일 부산이사관에 임명되었다. 화재에 대한 위험성과 소방조의 좌표를 기록한 『國民消防』을 저술하였으며 통감부 경무국장 재직시에는 소방을 한국에 정착시키는데 노력하였다. 그는 소방에 관한 전문서적인 『國民消防』의 저자였으며 한국뿐 아니라 일본소방에서도 소방의 기본적인 이론의 틀을 제공한 인물이었다.

취임하였다.³⁵⁾ 나카무라는 1890년 부산에 들어온 이래 간장업, 양조업, 해로사업을 개척한 실업가였다.

그는 부산소방조두를 맡으면서 부산거류민단, 상업회의소 부회두, 부산변영회의원, 부산수산감사도 역임하였다. 이것은 소방조두 자리가 부산지역의 유력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하였다는 의미이기도 하였다. 그가 소방조두로 재직중인 1915년을 전후하여 『부산일보』에 그의 이름이 대서특필 되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³⁶⁾

나카무라는 부산소방조의 조직을 각 部로 나누어 정비하였다. 애당초 부산소방조는 각 지역별로 결성된 소방조들의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화재가 커지면서 지역별로 나누어 활동하였던 소방조를 전체적으로 통합하였다. 먼저 琴平町에 있는 소방조를 제1부, 驛前에 있는 소방조를 제2부, 富平町 소방조를 제3부, 寶水町 소방조를 제4부로 하였다. 각 부 책임자에 부장을 두고 상비소방수 3명씩을 배치하였다. 1911년 4월에는 초량소방조를 제5부에, 牧島소방조를 제 6부로 개정하고 1914년 4월 부산진 소방조를 제7부로 고쳐서 1914년까지 7부 체제를 확립하였다.

부산소방조의 개편 배경은 1910년 10월에 동래부가 부산부로 개칭되고, 1914년에 부산부제가 실시되면서 부산부와 동래군이 분할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³⁷⁾ 부산이 독자적인 행정구역으로 자리 잡으면서 부산

35) 豊前縣 출신으로 1890년 부산에 건너와 해산물 매매업에 종사하였다. 부산거류민단, 상업회의소의원을 역임하였다. 1907년 부산 변영회원이 되고 부산수산주식회사, 부산공동창고주식회사 취체역, 부산상업회의소 부회두가 되었다. 박철규, 「1914년 전후시기 부산지역 유력일본인」, 『부산의 도시형성과 일본인들』, 천인, 2008, 314쪽.

36) 『부산일보』 1915.5.26. ‘회의소 의원의 면영(17) 부산상업회의소평의원 중촌준송 [中村俊松] 군’. 『부산일보』 1915.9.14., ‘중촌준송 [中村俊松] 씨의 꺾기 향추원 태랑 [香椎源太郎] 와사전기사장을 위하여’. 『부산일보』 1916.7.13. ‘부산상업회의소 평의원의 모습; 중촌준송 [中村俊松]’.

37) 김용옥, 「日帝強占期 釜山の 行政組織과 日帝의 統治機構」, 『港都釜山』15, 1998, 18쪽.

소방조도 조직개편을 서두르게 된 것이다.

부산과 밀접한 관련을 가졌던 ‘동래소방조’ 활동을 일별하자면 ‘동래온천소방조’는 1915년 한국인과 일본인 ‘공동소방조’를 조직하여 수압펌프 1대를 구입하였다.³⁸⁾ 1933년에는 한일인으로 구성된 동래소방조가 80여명으로 구성되었다. 조직은 제1부 가솔린펌프조, 제2부 완용펌프조였으며 조두는 나루토[鶴九] 외 한일인으로 구성된 부조두 두명, 소두에는 사사키[佐佐木], 하나마[花間] 등 일본인들이 활동하였다.³⁹⁾

부산소방조는 1915년 6월 『조선소방조규칙』이 발표되면서 소방조의 운영비를 부산부에서 부담하였다. 1920년대 부산지역에 화재가 빈발하자 실업가들은 화재로부터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소방조 후원금을 모금하였다. 부산 실업인들이 모금한 기부금은 1927년에는 7만원이었다.⁴⁰⁾ 기부금은 부산소방조의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는데 바탕이 되어 펌프자동차 2대, 수관자동차 3대를 구입하였으며 상비소방수를 16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였다. 상비소방수들은 펌프자동차를 조작하고 常勤하면서 화재를 감시하고 소방조의 행정업무도 담당하였다.

1922년 11월 부산의 유력한 실업가이며 미곡상인 고미야 만지로 [小宮萬次郎]가 부산소방조 조두에 취임하였다. 고미야 조두는 급증한 화재에 대비하고자 부산소방조 조직을 개편하였다. 우선 1924년 본정 2정목의 미쓰이 [三井] 물산 출장소를 매수하여 소방본부로 개축 이전하였으며 제 4부를 富民町으로 이전 신축하였다. 부산진 대기소를 확장하여 제2부(驛前), 제3부(富平町) 대기소를 폐지하고 기구를 두는 창고로 하였다. 여기에 본부를 만들어서 제1부를 소방본부로 하고 각 종래의 7

38) 『부산일보』, 1915. 4. 17., ‘동래온천 소방조’.

39) 『부산일보』, 1932. 12. 3., ‘동래의용소방조; 세 가지의 기관을 완비’.

40) 『每日申報社』, 1927.9.14., ‘消防寄附金 釜山에 七萬圓’.

부제를 5부제로 고쳐서 명칭을 本町, 富民町, 草梁町, 釜山鎮, 牧島대기소로 개칭하였다. 이것은 본부를 소방활동의 중심기능으로 강화하면서 인구와 공장이 집중되는 지역의 대기소에 소방장비를 배치한다는 고미야 조두의 방침 때문이었다.

소방본부 기능의 강화는 지역별로 산이 가로막혀 할거성이 강하다는 부산의 지형적 특성 때문이었다. 동래, 초량, 목도, 부산진 등 각 지역 소방조들은 지역마다 독자적인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소방체제를 1부, 2부, 3부 등 5부로 편제하여 소방조의 통일을 기하였다.⁴¹⁾

<표 4>는 1933년 부산소방조 배치표이다. 1933년 9월에는 부산소방조는 상비소방수를 37명에서 53명으로 증원하였다. 본부에 상비소방수를 배치하고, 소방수들의 봉급과 운영비를 본부에서 지급하면서 본부의 장악력은 탄력을 받게 되었다.

<표 4> 1933년 부산소방조 배치표

부별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제5부	계
소재지		본정2정목	부민정	초량정	부산진	목도	
조 원	조두	1					1
	부조두	1					1
	부장	1	1		1	1	5
	소두	1	1		1	1	5
	상비소두	2					2
	상비소방수	29	9	9	6	6	53
	의용소방수	20	20	20	20	25	105
	합계	55	28	28	28	33	172

참조: 朝鮮消防協會, 『朝鮮消防』 8卷 10號, 1936, 67쪽.

41) 당시 군산·목포·대전 등 여타 소방조는 하나의 소방조를 지역별로 나누어 部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부산소방조에는 이전부터 설치된 동래, 초량, 부산진 등 각 소방조를 1부, 2부, 3부 등으로 명칭을 부여 하였다.

<표 4>에서 제1부 본부에 소방조원이 55명이 배치되었는데 이는 부산소방조원 172명 중에 삼분지 일에 해당하였다. 더구나 본부에 배치된 29명의 상비소방수는 의용소방수 20명보다 더 많은 숫자여서 1930년대 초반부터 부산소방조 활동은 상비소방수 체제로 운영되었다. 본정·부민정·초량정에는 상비소방수가 9명씩 배치되었으며 부산진과 목도에는 6명씩 배치되었다. 본부에는 상비소두가 2명이었는데 이들 업무는 상비소방수를 관리하고 소방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1929년 본부가 있는 본정거주 인구는 2,513명이었는데 그중 일본인은 1,868명(74%), 한국인은 628명(24%)으로 일본인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었다. 제2부가 자리한 부민정은 1,406명 거주 인구에서 일본인 781명(55%), 한국인 319명(22%), 제3부가 자리한 초량정은 거주인구 13,751명에서 일본인 3,846명(27%), 한국인은 9,560명(69%)이었다.⁴²⁾ 부산진에는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였는데 1933년 들어 제4부 소방수 20명 중 한국인 소방수 5명을 포함하였다. 일본인 일색이었던 부산소방조에 한국인 소방조의 채용은 부산진에 한국인 거주가 많았기 때문이다.

부산소방조의 한국인 일본인 구성을 살펴보면 1926년 11월 28일 발표된 『朝鮮總督府慶尙南道告示』 제96호 관보에 일본인 소방수가 137명에서 143명으로 증원되고 한국인 소방수가 13명에서 10명으로 감소된 기록이 보인다. 또한 상비소방수는 일본인이 42명 한국인이 1명으로 보인다. 『朝鮮消防』 기록에 따르면 부산소방조의 역대 간부중 한국인 朴致和가 1914. 4-1925. 7. 26일까지 중견간부인 소두를 역임한 기록이 보인다.⁴³⁾ 박치화의 기록으로 보아 적어도 1914년에는 부산소방조에서 한국인 소방수 활동을 볼 수 있다. 동래에서는 온천을 중심으로 모여

42) 釜山府, 『釜山府勢要覽』, 1929·1930. 釜山府, 『釜山商工案内』, 1934에서 참조.

43) 朝鮮消防協會, 『朝鮮消防』 8卷 10號, 1936, 71쪽.

든 일본인들이 1915년에 한국인과 합동으로 ‘동래온천소방조’를 조직하였다는 기록으로 동래 지역에서 한국인 소방수의 활동이 더 빨리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⁴⁴⁾

<표 5> 1920-1930년 부산소방조 간부 현황

이름	직명	경 력	참고 자료
中村俊松	조두	豊前縣, 부산거류민단 상업회의소부회두, 부산변영회의원, 부산수산감사,	『부산변영회 회원 명부』, 1908년.
追間保太郎	부조두	和家山, 미곡상, 부산수산감사, 미곡상 상업회의소 의원, 거류민단 의원, 갑인회회원	釜山甲寅會, 『日鮮交通史(附釜山史近代記)』
小宮萬次郎	조두	長崎縣, 미곡상, 小宮鑛業所 운영, 광산업 상업회의소, 거류민단 이사,	『재조선내지인 신사명감』, 397쪽.
西條利八	조두	德島縣, 西條造船鐵工所 운영, 부회의원	阿部薰, 『조선공문사』, 『在朝鮮內地人紳士名鑑』, 397쪽. 『鮮功勞者銘鑑』, 民衆時論社, 252쪽.
千歲定吉	부조두	長崎縣, 건축토목업자, 立石製油工場, 방어진방과제 건설, 공생회를 조직 의용소방조를 조직	阿部薰, 『朝鮮功勞者銘鑑』 民衆時論社, 731쪽.
小野才次郎	소두	선구 수리업소, 철공소운영	식산국, 『朝鮮工場名簿』, 朝鮮工業協會, 1932.
沖本國松		沖本櫓權 製造所, 배 선구 제작소 운영	식산국, 『朝鮮工場名簿』, 朝鮮工業協會, 1932.
朴致五		釜山畜産 이사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東亞經濟時報社

- 44) 『부산일보』 1915. 4. 17., ‘동래온천 소방조’.
- 45) 『부산일보』 1937.12.1., ‘제2회 전국 방화대회를 맞아, 부민의 희망; 부산소방 부조두 중촌역태랑 [中村力太郎] 씨 말한다. 『부산일보』 1928. 1. 31., ‘실업가 중촌역태랑 [中村力太郎] 씨 부인의 부고’.
- 46) 『부산일보』 1940. 02. 25., ‘부산 업계의 중진 신개평칠[新開平七]씨’.

이름	직명	경 력	참고 자료
中村力太郎	조두	廣島縣, 부산소방조 부조 두 ⁴⁵⁾ 第一産業組合중역, 수 산가공 얼음공장 운영, 부산 상사 사장	東亞經濟時報社, 『朝鮮銀 行會社組合要錄』, 1935.
山本仁助	부장	山口縣, 부산소방조 소두	朝鮮總督府, 『始政25周年 記念表彰者』1935, 1135쪽
室井勝吉	부장	釜山商工社중역, 大池商店이 사, 중개매매업	東亞經濟時報社, 『朝鮮銀 行會社組合要錄』, 1939.
新開平七	부장	兵庫縣, 부산어업중매상 ⁴⁶⁾ 상업회의소의원, 어류해산물 매매업	東亞經濟時報社, 『朝鮮銀 行會社組合要錄』, 1933.; 阿 部黨, 『朝鮮功勞者銘鑑』 民衆時論社, 1135쪽.
原田泰藏	부장	山口縣, 정미업, 上村精米所 (株)감사.	阿部黨, 『朝鮮功勞者銘鑑』 民衆時論社, 1135쪽; 東亞經 濟時報社, 『朝鮮銀行會社 組合要錄』, 1929.
上田豊助	소두	山口縣, 양조장 유업, 부산진 농조 부조합장	『上田豊助부고』 『부산일 보』, 1936. 9. 27.
島田力松	소두 ⁴⁷⁾	山口縣, 부산소방수, 조선소 방협회 표창	阿部黨, 『朝鮮功勞者銘鑑』 民衆時論社, P.1134.
朴致五	소두	한국인 소두	朝鮮消防協會, 『朝鮮消防』 8卷 10號, 1936, 71쪽
임정일	소두	한국인 소두	朝鮮消防協會, 『朝鮮消防』 8卷 10號, 1936, 71쪽

<표 5>는 부산소방조 초대 조두, 부조두 및 1920년-1930년대 소두이
상급 부산소방조 간부의 이력이다.⁴⁸⁾ 1920-1930년 간부들 출신지는

47) 1911년 4월 1일 釜山消防組 消防手로 시작하였다.

48) 이들의 인적사항에는 소두, 부장, 부조두, 조두의 명단에서 경력과 신상이 확인사람
의 인명만 기록한 것이다.

山口縣이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부산거주 일본인들의 출신 동향과 관련이 있다. 1907년 부산거주 일본인 15,089명의 출신동향을 보면 山口縣이 4,00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長崎縣 2,512명, 福岡縣 1,453명, 廣島縣 1,264명 순이었다.⁴⁹⁾

특히 소방간부 중 조두였던 고미야 만지로 [小宮萬次郎] 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1922년-1935년 10월까지 13년간 부산소방조를 이끌었다. 고미야는 부산 최고실업가인 오이케 츄스케 [大池忠助]⁵⁰⁾ 와 같은 장기현 출신이었다. 부산경제의 대부인 오이케는 1875년 부산에 건너와 무역, 정미업, 해상 화재보험, 석회상 등 다양한 사업을 일구었다. 그는 부산지역 대표단체인 부산번영회장 및 부산잡인회 회장을 맡으면서 부산지역의 정계, 실업계를 아우르는 유력자가 되었다.⁵¹⁾

개항 이후 부산거류민단 활동은 토목 · 교육 · 위생 · 소방으로 나뉘었는데 거류민단의 대표였던 오이케가 소방조 활동에 관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⁵²⁾ 오이케와 같은 장기현 출신이었던 고미야가 1920-1930년대 소방 조두를 맡은 것도 우연은 아니었다.⁵³⁾ 고미야의 후임 조두인 사이쵸 리하치 [西條利八] 역시 오이케와 木島에서 船渠 회사를 동업하였다.⁵⁴⁾ 제2부장 이었던 무로이 카츠요시 [室井勝吉]

49) 釜山商工會議所, 『釜山商工會議所年報』, 211~212쪽.

50) 大池忠助는 1856년 쓰시마에서 태어나 20세가 되던 해인 1875년 부산으로 건너와 대일무역에 종사하였다. 그는 사무역 및 고리대금업은 물론 오이케 여관을 운영하면서 부산을 중심으로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성공하였다. 전성현, 『식민자와 조선-일제시기 大池忠助의 지역성과 '식민자'로서의 위상』, 『한국민족문화』 49, 2013, 271~316쪽.

51) 박철규, 「1914년 전후시기 부산지역 유력일본인」, 『부산의 도시형성과 일본인들』, 선인, 2008, 284~285쪽.

52) 박철규, 위의 논문, 282쪽.

53) 개항이후 한국에 건너온 일본인 사이에서 한국에 정착한 동향출신 관료나 유력실업가를 찾아와 사업을 하는 것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었다. 1899년 군산이 개항하면서 대주출신 목포영사관 군산분관주임이었던 천산현장을 찾아 장기현 대주출신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는 얘기가 있다.

도 오이케 상점인 ‘大池商店’ 이사를 지낸 점. 초대 소방조두인 나카무라 도시마쓰 [中村俊松], 부조두인 하사마 후시다로 [迫間保太郎] 등이 오이케가 대표로 있는 부산수산주식회사의 감사를 역임한 것을 보아도 부산소방조에 대한 그의 영향력을 알 수 있다.⁵⁵⁾

소방조 간부들은 선구제작이나 수산회사, 건축, 토목업에 종사하였다. 정미업에 종사한 하라다 유타카쿠라 [原田泰藏], 농업·양조업을 운영한 우에다 토요스케 [上田豊助], 미곡상이었던 고미야 만지로 [小宮萬次郎] 처럼 1920년대 간부들은 농업 및 정미업에 관여하였다. 그러나 1930년대는 조두인 사이쵸 리하치 [西條利八]가 철공업을, 소두 오노 사이지로 [小野才次郎]가 선박수리업에 종사하였다. 간부들의 제조업종 변화는 1920년대의 식료품 및 정미, 미곡업에서 1930년대 철공소등 경공업으로 바뀌어지는 부산 제조업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소방조 간부들은 초창기의 민단조직, 상업회의소의원, 부산 번영회 회원, 갑인회회원⁵⁶⁾ 등 부산지역의 유력사회단체를 거치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였다.⁵⁷⁾ 이들이 소방조에 관여한 것은 화재로부터 재산을 지킨다는 명분 이전에 소방조라는 단체에 밀착함으로써 부산지역 사회에서 자신들의 위신과 입지를 강화하려는 노력이었다.

54) 阿部薰, 『朝鮮功勞者銘鑑』民衆時論社, 252쪽.

55) 부산수산주식회사는 남빈정에 있으며 1889년 4월에 설립되었으며 1922년 자본금 200만엔으로 증가되었다. 1917년 大地忠助가 전무취체역 사장이었으며 迫間保太郎, 香推原太郎, 中村俊松 등이 감사역 등 임원으로 있었다. 홍순권의, 『일제시기 재부산일본인사회 사회단체 조서보고』, 선인, 2005, 156~157쪽.

56) 甲寅會는 1914년 3월 31일에 설립되었는데 총독부의 민단 등 자치기관의 해체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그러나 오이케 츠스케(大池忠助)등 부산지역의 주요 상공인들이 이름을 올리면서 부산지역의 가장 강력한 압력단체가 되었다. 홍순권의, 『일제시기 재부산일본인사회 사회단체 조서보고』, 선인, 2005, 430쪽.

57) 홍순권의 외, 『부산의 도시형성과 일본인들』, 선인, 2008, 292쪽.

2. 축의금 유용과 조직 쇠신

부산소방조는 1920년대 들어서 상비소방수 채용과 펌프자동차 구입에 예산이 필요하였다. 물론 府는 소방수 기본 인건비와 운영비를 ‘警備費’라는 예산항목으로 부담하였다.⁵⁸⁾ 그러나 고가의 신식장비 구입에는 부민들의 기부금이 필요하였다. 부민들의 기부가 적극적일 수 있었던 것은 1920년대의 화재의 빈발이었다. 가공할 화재로 재산 소실이 늘자 부민들은 소방조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따라서 기부금 또한 증가하였다. 연초에 열리는 소방조 출초식은 경남지사를 비롯하여 부윤, 경찰서장, 군부대 지휘관까지 참석하는 지역행사로 자리매김 하였다.⁵⁹⁾

출초식에서 보여준 소방조의 질서 있는 분열식과 펌프의 힘찬 방수 모습에 고무된 부민들은 많은 ‘축의금’을 보내 격려하였다. 1927년, 1928년 1929년 3년 동안의 출초식 축의금에 관련하여 부산부의회는 “과열양상을 보이는 행태”라며 질책하였다.⁶⁰⁾ 야마가오 [山川] 부의원은 출초식 비용에 부예산 15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도 관습적으로 축의금을 받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였다.⁶¹⁾ 그러나 구와바라 이치로 [槲源] 부윤은 출초식 축의금의 12%는 장비구입 적립금으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출초식 연회비 및 춘·추계 혼련비로 지출된다고 하였다. 이 일을 계기로 출초식 축의금은 공식적으로는 폐지되었다.⁶²⁾ 이후 부산소방조의 신년 출초식에 축의금에 대한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비공식적 기부금은 ‘소방후원회’를 통하여 모금되었다.

58) 朝鮮消防協會, 『朝鮮消防』 8卷 10號, 1936, 72쪽.

59) 『부산일보』 1929.3.25., ‘소방 출초식의 기부금에 의론이 비등, 부산부협의회’.

60) 『부산일보』 1927.4.3., ‘조간 부산소방조 출초식[出初式] 기부’.

61) 『부산일보』 1929.3.25., ‘소방 출초식의 기부금에 의론이 비등; 부산부협의회’.

62) 『부산일보』 1929.3.28., ‘소방문제에 의론 자못 비등한 부산부협의회’.

<표 6> 1928-1929년 부산소방조 출초식 기부 명단

	1928	1929
120원		부산 부청
100원		祿町유곽 組合
30원	香椎源太郎, 大池忠助	香椎源太郎, 大池忠助, 迫間房太郎, 瓦斯電氣會社
20원	安田銀行釜山支店, 조선은행 지점, 십팔은행, 花月, 村山 경찰부장, 제일은행, 迫間房太郎	安田銀行釜山支店, 伊達匹雄, 제일은행 부산지점, 水口前知事, 殖産銀行, 大八은행, 興業會社,
15원	부산경찰서장, 동척 부산지점	부산경찰서장
10원	부산미곡증권, 부산수산회사, 伊藤廣之助. 상생관, 三中오복점, 부산증권, 전매지국, 立石良雄, 三井物産支店, 大島芳輔, 愛月, 東松太郎	武久捨吉, 三中井吳服店, 부산미곡증권, 專松太郎, 靈山형제상회, 부산일보사, 부산증권, 立石陽雄, 伊藤廣之助, 라이쿠센 석유 부산출장소, 花月, 森山旅館, 相生館, 三井物産 부산지점, 상업은행, 山本利吉, 四尾英太郎, 前田熊太郎, 곡물시장, 迫間保太郎, 한성은행, 부산전매국, 경상남도 금융조합연합회

참조: 『부산일보』, 1928. 1. 16., 『부산일보』 1929. 1. 6.

<표 6>은 1920년대 후반 모금된 소방조 후원 기부자 명단이다. 당시 후원금은 작게는 1원에서 수백원에 이르기까지 부산지역 단체장, 실업인, 회사 및 소상공인까지 다양하였다. 1929년에 100원을 기부한 부산 ‘녹정유곽조합’은 회원 47명의 대표적인 유곽조합이었다.⁶³⁾ 이 조합의 100원 기부는 부산지역 유곽, 여관의 빈발하는 화재에 대한 걱정이 작용하였다. 30원을 기부한 오이케 츄스케 [大池忠助], 하사마 후시타로 [迫間房太郎], 가시이 겐타로우 [香椎源太郎] 등은 부산잡인회, 부산기로회, 부산번영회를 주도하면서 부산 상공업의 3대 권력자로 권

63) 『부산일보』 1929.3.23., ‘소방조 축의 금 기부’.

력과 재력을 좌우하였다.⁶⁴⁾

10원을 기부한 ‘부산미곡증권’은 부산지역의 금융업, 창고업, 운수업, 미곡 매매증개를 하는 미곡상들의 조합이었다.⁶⁵⁾ 부산미곡증권은 오이케 츠스케(11,730주) 하사마 후시타로(2,150주), 가시이 겐타로(2,000주) 등이 대주주였다.⁶⁶⁾

역시 10원을 기부한 ‘부산수산회사’도 부산지역 어시장 설치와 어획물에 대한 경로 및 판로를 취급하는 회사였다. 임원은 하사마 후시타로(5927주), 오이케 츠스케(2,495주) 가시이 겐타로(2,304주) 부산미곡증권(1200주) 등이 출자하였다.⁶⁷⁾ 부산의 큰 전기회사인 瓦斯電氣會社 사장이었던 가시이 겐타로 [香椎源太郎]의 지속적인 기부도 주목된다. 1920년대 전기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전기과열, 누전으로 인한 화재도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실업인들의 후원금은 부산소방조의 장비확충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방장비 구입과정에서 1935년 부산소방조의 ‘축의금횡령사건’이 보도되었다. 이 사건은 1935년 5월 4일 부산소방조 소방수 172명 중 상비소방수 53명을 제외한 나머지 10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공론화되었다⁶⁸⁾ 소방조원들은 출초식 축의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간부들의 부정을 항의하였다. 아울러서 상비소방수가 증원되면서 인사운영의 독단성에 대한 불만도 제기하였다.⁶⁹⁾ 대형화재가 부산지역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시기에 의용소방조원의 사직은 경찰서장을 비롯한 부산

64) 박철규, 앞의 논문, 292쪽.

65) 東亞經濟時報社 『朝鮮銀行會社要錄』, 1923·1925.

66) 釜山府, 『釜山開港五十年紀念號』 1926, 62쪽.

67) 釜山商工會議所, 『釜山日本人商業會議所年報』, 1907. 東亞經濟時報社,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21.

68) 『동아일보』 1935.5.8., ‘義勇 消防手 總辭職 火災 나면 큰일! 부산부 내 각 정동 소방수들, 原因은 幹部들’.

69) 『朝鮮中央日報社』, 1935.5.8., ‘組員百餘名 突然總辭職斷行: 組頭의 不信任을 筆頭로 하여 許多한 不平이 爆發’.

부민의 관심을 촉발하였다. 여기에 대하여 소방업무를 관할한 가토 [加藤] 경남도 보안과장은 원만한 해결을 당부하였다.⁷⁰⁾

경찰조사 결과 예산소두 야마모토 자다로 [山本諺太郎]는 10년 동안 소방호수 매각대금을 횡령하고 자동차펌프 구입가격을 조작하였다. 또한 출초식 연회에 지출한 돈과 장부를 허위 기재 하였다.⁷¹⁾ 3만원의 금액을 횡령한 소두 야마모토가 구속되면서 공금횡령사건은 일단락 되었다.⁷²⁾ 그러나 조두 고미야 만지로 [小宮萬次郎], 부조두 후쿠모토 요조스 [福本良之助]가 소방협회 기부금을 6천원을 횡령한 것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조두·부조두도 형무소에 수감되었다.⁷³⁾

1922-1935년까지 고미야는 부산소방조를 이끌면서 지역별로 활동하였던 소방조를 본부 중심체제로 통합하였다. 축의금을 조성하여 최신 소방장비를 확충한 것은 고미야의 공적이었다. 그러나 그의 독단적인 소방조 운영은 자신은 물론 간부들의 비리를 촉발하였다.

<표 7> 1925-1935년 부산소방조 경비비

(단위: 엔)

연도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경상비	40,187	45,030	48,329	49,749	51,566	51,197	51,660	51,102	53,112	53,996	53,662
임시비	6,000	17,800	18,860	10,000	11,000	2,220	2,220	6,200	1,800	7,000	6,000
계	46,187	62,830	67,189	59,749	62,566	53,417	53,880	57302	54,912	60,996	59,662

참조: 『부산일보』, 1928. 1. 16.; 『부산일보』 1929. 1. 6.

70) 『동아일보』 1935.5.8., ‘義勇 消防手 總辭職 火災 나면 큰일! 부산부 내 각 정동 소방수들, 原因은 幹部들 排斥’.

71) 『동아일보』 1935.7.3., ‘釜山消防組不正 事實去益純露’.

72) 『동아일보』 1935.8.25., ‘釜山消防組會計員 公金三萬圓橫領 十年 간을 계속 물품대 등 사기 五十日間 取調後送局’.

73) 『동아일보』 1935.9.8., ‘釜山消防正副組頭 背任橫領罪로 強制收監 기부금 六천여 원이나 횡령 消防疑獄去益擴大’.

<표 7>은 1925-1935년 부산소방조의 예산비이다.⁷⁴⁾ 1920년 중반부터 1930년 중반까지 부산소방조는 화재에 대처하기 위하여 장비를 구입하였다. 이 시기 부산부의 소방조 예산은 매년 평균적으로 비슷한 추세였다. 그러나 임시비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부산 소방조의 펌프차 구입 등이 임시비에서 지출하였다는 것을 볼 때 임시비의 감소는 자동차 펌프 등 최신장비 구입에 경상비보다는 부민들의 축의금으로 펌프차 구입이 충당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부산소방조는 임의적인 회계부정을 저지르면서 소방수들의 원성에 직면하였다.⁷⁵⁾ 부산소방조의 횡령과동은 한일인 차별에 대해 사표를 제출한 공주 한국인 소방수들의 ‘사표과동’과는 다른 성격이었다.⁷⁶⁾ 대부분이 일본인이었던 부산소방수들은 기득권을 가진 일본인 소방조 간부에 대한 저항을 표출한 것이다.

소방조 간부의 비리를 감독하지 못한 부산부에 대한 부의회의 질책도 이어졌다.⁷⁷⁾ 부산소방조는 고미야 조두 구속 이후 부산의 건설업자이며 토목업계의 거물인 사이쵸 리하치 [西條利八]가 1936년 10월 조두로 취임하면서 재편성 되었다.⁷⁸⁾ 부산소방조 간부들의 부정은 하급의용 소방수들의 완강한 저항으로 새로운 채신의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74) 당시에 소방조의 예산산은 각 부면에서 담당하였다는 것은 누차 강조한 사항이거나 부면에서 책정한 소방조예산은 보통 ‘經備費’라는 이름으로 책정하였다.

75) 『동아일보』 1935.5.8., ‘義勇 消防手 總辭職 火災 나면 큰일! 부산부 내 각 정동 소방수들, 原因은 幹部들 排斥.’

76) 『동아일보』 1926.8.16., ‘公州消防組의 紛騷(公州 一記者).’

77) 『동아일보』 1935.9.10., ‘釜山消防疑獄事件 總被害 二萬餘圓, 來府會議波瀾未免’,

78) 사이쵸 리하치(西條利八) 1904년에 조선에 건너와서 京釜鐵道株式會社에 들어감. 1906년 釜山 富平町 1丁目에 철공소를 세워 철공업, 造船業에 종사하여 1935년 현재에 이룸. 1912년 大池忠助와 함께 牧島에 船渠를 창설하고 조선업계에 진출했지만 구주전란의 영향으로 중지. 1916년 朝鮮船渠株式會社를 만들어 감사역 취임. 1926년 파탄. 1926년 이후 朝鮮船渠株式會社를 매수하고 富平町의 철공소를 牧島의 공장에 합병하여 西條造船鐵工所를 창립. 府會議員, 商會議所 常議員.

IV. 예방활동과 화재진압

부산소방조는 1920년-1930년 빈발하는 화재에 소방출초식, 춘·추계 소방훈련을 통하여 화재에 대처하였다. 9월에 열리는 ‘방화데이행사’ 또한 부민들의 화재 경계심을 고취시켰다. ‘出初式’은 한해의 소방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였다. 이 날은 소방조원들이 집결하여 결의를 다지고 단배식을 하였다.⁷⁹⁾ 부산소방조에서는 출초식을 ‘항례출초식(恒例出初式)’이라고 하였는데 소방본부에서 열리기도 하고 부별로 치루어 지기도 하였다.⁸⁰⁾

출초식은 여섯시에 타종이 울리면 소방조원들은 일곱시까지 南嬪町 매립지에 집합하여 입장하였다. 경찰서장의 조원검열, 지사·부윤의 조원표창, 사다리조법 시범이 끝나면 소방자동차를 동원하여 화재진압 시범을 보였다. 龍頭丸, 常盤丸, 警備丸 등 3척의 消防船도 참가하여 火點에 일제방수를 하여 화재를 소화하였다.⁸¹⁾

1931년 1월 4일 부산 매립정에서 열린 출초식에는 부산소방조원 160여명이 참여하였다. 이날 출초식에는 부산부윤, 경찰서장은 물론 헌병분대장, 인근 통영, 김해, 구포 소방조원 200여명이 참관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출초식이 끝나면 저녁에는 연회를 개최하여 소방조원을 격려했다.

출초식이 소방조의 한해를 시작하는 행사였다면 소방조의 춘·추계 연습은 화재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행사였다.⁸²⁾ 춘계연습은 보통 5

79) 金相旭, 『일제강점기(1910~1939) 공설 군산소방조의 결성과 활동』, 『전북사학』 50, 2017.

80) 『부산일보』 1933.1.5., ‘부산소방조의 항례 출초식’.

81) 『부산일보』 1933.1.5., ‘부산소방조의 항례 출초식’.

82) 소방조의 춘계 추계 훈련에 참석하는 것을 의무조항이 되었는데 이는 1922년에 부산 소방 조두에 취임한 고미야 만지로 [小宮萬次郎] 지시였다.

월, 추계연습은 11월에 이루어졌다. 아침에 소방본부의 망루에 타종이 있으면 소방조원들은 부산의 ‘大正公園’에 집합하였다. 오전 열시에 인원복장 점검과 기기계구의 정렬, 도보분열식, 자동차분열식을 행하였다.

행사의 마지막에는 무덕관에 가상화재 모형을 세우고 펌프자동차는 화재지점을 포위하여 일제방수로 훈련을 마무리 하였다. 방수에는 수천 발의 폭죽이 터뜨려지고 각 펌프차의 소방호수는 공중방수를 하여 펌프차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어서 지사, 보안과장의 훈시를 듣고 연회를 가진 뒤 해산하였다.⁸³⁾ 소방조원들은 훈련을 통하여 새로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 하고 화재현장에서 유기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기량을 연마하였다.

소방훈련이 화재진압 능력을 기르는 훈련이었다면 소방점검과 방화데이, 그리고 소방후원금을 모집하는 행사는 부민에게 화재의 위험성을 홍보하고 소방활동의 협조를 요청하는 행사였다. 방화데이는 9월 1일로 지정되었다. 府內 주요장소에 불조심 旗를 게양하여 화재 예방상 주의해야 할 표어를 인쇄 배포하였다. 방화데이에는 부산소방조·부산경찰서·북부산 경찰서·부산부청이 방화선전에 참여하였다.

방화데이날 아침에는 연습용 타종이 십 분 타종되었다. 조원들은 아홉시까지 본부에 집합하고 상비소방수들은 현장 교대하였다. 오전 9시 10분 조원들은 조두의 영지봉독⁸⁴⁾을 받고 방화데이에 대한 훈시를 받았다. 폭발탄 투하를 시작으로 가상대피 훈련에는 소방자동차 두 대가 참가하였다. 부청도서관, 공장, 병원장, 각 학교 교장들에게 통첩을 발행하여 당일 피난훈련 및 방화강연을 의뢰하고 방화교육을 당부하

83) 『부산일보』 1925.5.4., ‘비개인 대정공원에 백룡이 뛰는 장관을 보였다’. 『부산일보』 1933.11.1., ‘부산소방조 추계연습’.

84) ‘국민정신 작흥운동’ 이라는 이름아래 일왕에 대한 충성심과 맘가짐을 교육 받는 것이다.

였다.

이날 언론도 대대적인 소방홍보를 하였는데 부산일보, 시보 등 신문들은 불조심 홍보에 지면을 할애하고 저녁 7시 30분 내무대신의 화재예방에 관한 라디오 대담을 방송하였다. 아울러서 부민들에게 소방활동 사진 및 소화기 사용법 등 화재예방 영상을 홍보하였다. 한낮에는 소방 펌프 자동차 및 승용차 20대가 참가하여 시내를 순회하여 홍보하였다. 각부는 오전 10시 30분에 남빈정 매립지에 집합하여 선전차에 불조심 표지를 패용하고 퍼레이드를 펼쳤다.⁸⁵⁾

이외에도 방화주간에는 부산소방조에 굴뚝청소부를 두어 화재발생이 잦았던 煙突(굴뚝) 청소를 하였다. ‘清潔法’을 시행하여 봄가을에는 상비소방원으로 하여금 가정을 방문하여 소방검사를 행하였다. 공장 및 다중건물은 수시로 방문하여 소방지도훈련하고 방화시설 설치를 권고하였다.

화재예방도 중요하였지만 신속히 화재현장에 도착, 화재를 진화하는 ‘화재대응활동’도 중요하였다. 신속한 대응활동에는 신속한 화재발견 또한 중요하였다. 본정에서 화재를 감시하려 해도 북병산 및 용두산이 가로막아 반대쪽에 있는 대창정 및 서면 방면은 화재를 쉽게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1923년 2월 용두산에 시내전반을 조망할 수 있는 화재 감시 망루를 설치하였다.⁸⁶⁾ 망루근무는 상비소방수가 하였는데 화재 발견시에는 망루근무자가 전화기로 화재의 방향과 장소를 제1부 상비소방수에 보고 하였다.

화재를 접보한 제1부 근무자는 산하 각부에 전화로 화재를 전파하고 즉시 3개의 격납고에 있는 자동차펌프와 수관차 및 증기펌프를 출동시켰다. 펌프차들은 굉음을 울리면서 현장으로 질주하였다. 대기소에서

85) 『부산일보』 1928.12.23., ‘어제(22일) 방화[防火] 선전, 소방자동차 모두 출동’.

86) 『부산일보』 1939.6.6., ‘부산소방서 기구 개선 쇄신안(2)’.

자동차펌프로 출동하는 시간은 1분이며, 출동에서 현장도착까지 시간은 초량에서 부산진 방면은 10분에서 15정도, 대신동, 綠町 방면은 5분의 범위로, 기타 부대는 그 이내에 도착하도록 규정하였다.⁸⁷⁾

그러나 망루에서 화재를 발견하여도 화염은 이미 크게 번지는 경우가 많았다.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시 건축물은 이미 전소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깜깜한 밤에는 망루 발견이 용이하였지만 낮의 화재는 발견하기가 어려웠다. 망루에서의 화재발견은 수동적인 발견이었다. 따라서 화재발생과 동시에 현장이나 부근에 있는 사람이 화재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였는데 이것은 전화가 도입되면서 해결되었다.⁸⁸⁾ 공중전화기는 본부에 2대, 기타 대기소에 각 1대 설치하여 화재 감시가 망루에만 의지하지 않고 공중전화 등 통신시설을 사용하였다.⁸⁹⁾ 전화로 인한 화재신고는 우편국에서 부산본부에 화재신고를 통보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것으로 소방대의 출동시간은 단축되었다. ⁹⁰⁾

‘火災報知機’의 설치도 화재발견과 소방대의 출동을 더욱 단축시켰다. 가정용 화재보지기는 부산경찰서 건물 내부에 시험적으로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부산전역에도 화재보지기가 설치되었다.⁹¹⁾ 화재보지기의 보급은 소방조의 최초출동시간을 단축시켰다. 망루 및 전화, 화재탐지기에 의하여 제1부 대기소에 화재가 통지되는 동시에 전화로 산하 소방대기소에 화재를 통보하였다. 따라서 제1부로부터 5부까지 순식간에 출동하는 체계가 이루어졌다.⁹²⁾ 1930년대에 들어서는 화재발생

87) 『부산일보』 1925.2.1., ‘화재와 다투다; 소방수 이야기(2)’.

88) 1928년에는 설치된 통신시설과 신고체계를 보면 제1호기는 본부에는 망루와 본서를 연결하는 전화기가, 제2호기는 본부의 망루에서 부민정으로, 제3호기 본부에서 초량정과 부산진으로 1934년에 본부와 목도를 연결하는 제4호기가 연결되었다.

89) 朝鮮消防協會, 『釜山消防沿革概況』, 『朝鮮消防』 8, 68쪽.

90) 『부산일보』 1928.1.29., ‘소방대의 출동 빨라져’.

91) 『부산일보』 1933.1.17., ‘자가용 자동화재 보지기 시험’.

92) 『부산일보』 1925.2.2., ‘화재와 다투다; 소방수 이야기(3)’.

시 일차적으로 대기소에서 근무하는 상비소방수와 자동차 펌프가 출동하였다. 그러나 점차 폭발성과 위험성이 큰 화재로 확대 되면 부산 지역 전 의용소방수가 비상 동원 되었다. 본부에 있는 펌프차량과 장비도 동원되었다.⁹³⁾

<표 8> 1934년 부산소방조 주요 펌프 장비

차량번호	년도	장소	가격 (원)	차량번호	년도	장소	가격 (원)
53호 펌프차	1934	본부		제54호 펌프차	1935	부산진	
55호 펌프차	1934	본부	5,480	수레 수관차	1935	부산진	
56호 펌프차	1927	본부		완용 펌프	1905	부산진	
36호 파괴차	1936	본부		제60 펌프차	1931	목도	
2호 증기원통	1905	본부	2,500	사륜 펌프수레	1922	목도	3,300
수레수관차	1905	본부		제1호 증기펌프	1905	목도	2,500
59호 운반차	1931	본부	1,200	수레 수관차	1905	목도	
62호 펌프차	1922	부민정		수레 수관차	1905	부평정	
제57 펌프차	1928	부민정	6,950	완용펌프	1905	주압	
수레 수관차	1928	부민정		수레 수관차	1928	부전리	
51호 펌프차	1921	초량정	14,000	완용 펌프	1905	부전리	
58 펌프차	1928	초량정	6,730				
수레 수관차	1928	초량정					

참조: 朝鮮消防協會, 『朝鮮消防』 8卷 10號, 1936, 68쪽.

소방펌프는 사람의 손으로 작동하는 수동펌프인 완용펌프, 증기를 활용하여 작동하는 증기펌프, 기술린을 활용하는 기술린펌프 그리고 자동차에 부착하여 자동차 엔진으로 방수하는 자동차 펌프 순으로 발전되었다. 자동차펌프는 한국에서는 1921년 ‘경성소방조’에서 먼저 도입되

93) 『부산일보』 1925.2.4., ‘화재와 다투다, 소방수 이야기(4)’.

었다.⁹⁴⁾ 소방의 3요소를 소방수, 소방장비, 소방용수라고 한다.⁹⁵⁾ 종래는 화재는 양동이로 물로 손으로 진압하였지만 대형공장이나 아파트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100척 이상 훌훌 나는 수준으로 물을 뿌려주는” 자동차펌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였다.⁹⁶⁾

<표 8>에서 본부에 배치된 펌프장비는 출초식 축의금이 답지하였던 1928년 이후에 대거 구입되었다. 화재출동에는 가장 선두에서 펌프자동차가 앞장 섰는데 펌프차 조작성은 상비소방수의 몫이었다. 화재가 인근으로 出火되면 2차적으로 의용소방수들이 출동하였다.⁹⁷⁾

소방본부가 들어있는 제1부는 일본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거류지에 위치하고, 화재시 각 부 구역에 지원출동을 하였기에 최산장비를 배치하였다. <표 8>의 13대의 자동차펌프에서 5대가 본부에 배치되었다. 다음으로 일본인이 많이 거주하는 부민정의 2부, 전관거류지인 초량정에 배치되었다. 4부의 부산진에 이어 대단위 공장이 있는 목도에도 4대가 배치되었다. 소방장비의 배치원칙은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본정을 중심으로 본부에는 최신 장비를 배치하고 목도 등의 공단지대나 한국인 거주지역에는 노후된 장비가 배치되었다.

V. 맺음말

부산은 1876년 개항이후 개항장으로써 한국 최고의 무역항이며 경성 다음의 도시로 성장하였다, 인구가 늘어나고 시가지가 복잡해지면서 부

94) 오영섭, 『서울災害史』,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13, 405쪽.

95) 김상욱, 『일제강점기(1910~1939) 대전소방조의 결성과 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6, 2018, 136쪽.

96) 오영섭, 앞의 책, 405쪽.

97) 朝鮮消防協會, 『朝鮮消防』 8卷 10號, 1936, 66쪽.

산에는 화재가 다발하였다. 부산지역의 화재는 한국인과 일본인의 화재를 분석해보면 일본인들의 화재 피해가 한국인들에 비하여 막대하였다. 이는 부산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거주지역의 일본인들에 비하여 거주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아울러서 부산거주의 일본인들은 제조업 및 다양한 종목에 종사하였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하면 이들의 피해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1930년대에도 화재로 인한 일본인들의 소실피해는 더욱 증가하였다. 일본인들은 한국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재산을 소유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비하여 한국인 지역은 주택 및 빈민촌 화재가 발생하였다. 빈발하는 화재에 부산소방조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첫째로는 조직에 대한 체제정비가 그것이었는데 부산소방조는 1920년대 들어서 소공만차량이 조두가 되어 소방장비를 확충하고 조직 체제를 5부로 정비하였다. 아울러서 상비소방수를 각部に 배치하였다. 부산소방조의 조직정비에 대하여 부산실업가를 비롯한 부민들은 출초식을 비롯한 소방조 행사에 축의금을 기부하였다. 그러나 소방장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소방조 간부들의 축재가 있었고 이는 고미야 만지로 [小宮萬次郎] 조두 등 소방조 간부들의 퇴진과 구속으로 이어졌다. 소방조의 축의금의 부정사용은 부산소방조 인적쇄신의 계기가 되었다. 오이케 등 부산 실업가들은 부산상공회의소, 부산부의회 등 권력집단을 장악하면서 소방조를 영향력 아래 두고 전횡하였다. 그러나 독선적인 소방조 운영은 소방조원의 저항에 직면 하였으며 이것은 소방조 간부들의 퇴진으로 연결되었다.

두 번째, 화재예방훈련 및 화재발생에 대비한 대응훈련을 강화하였다. 예방활동은 화재발생을 억제하는 활동이었다. 소방조에게 출초식은 연초에 중요한 행사였다. 출초식을 통하여 한해를 설계하고 의지를 다짐하였다. 출초식에는 소방조원은 물론 부산부윤 및 경남도지사도 참석

하여 연회를 베풀고 격려하였다. 아울러 소방출초식 축의금이 답지되어 부산소방조의 장비를 구입하는데 기여하였다. 봄·가을에는 춘 추계 소방훈련이 있었는데 이날은 소방조원들이 자동차 펌프를 활용하여 유기적인 소방훈련을 실시하였다. 매년 겨울철에는 방화데이를 시작하였는데 방화데이에는 불조심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다.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출동하는 대응활동에 있어서 부산소방조의 출동시간은 15분 정도였다.⁹⁸⁾ 소방조는 자동차펌프를 타고 망루에서 화재를 발견하고 탐지하면 자동차 펌프로 신속하게 출동하였다. 화재에는 상비소방수가 먼저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였고 화재가 출화되면 소방조는 의용소방대를 동원하였다.

1920-1930년대 부산지역의 화재발생은 부산의 인구성장, 시가지의 팽창으로 인하여 더욱 증가하였다,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부산지역의 실업인들은 축의금을 통하여 소방조를 지원하였다. 아울러 부산소방조는 화재진압을 위하여 대응활동을 활발히 하였다. 그러나 부산소방조의 활동은 본정을 중심으로 한 일본인들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활동하였고 최신장비도 일본인 중심으로 배치되었다. 그러나 부산진 등 한국인 거주지역에 한국인 소방수를 충원하므로써 소방활동에 한국인을 배려한다는 전시적 소방대책을 보여주려 하였다.

| 참고문헌 |

1. 사료

『동아일보』, 『부산일보』, 『조선중앙일보』,
木浦消防組, 『木浦消防沿革史』, (1929).

98) 『부산일보』 1929.3.30., ‘화재와 싸우다 소방수 이야기(2)’.

- 釜山商業會議所, 『釜山要覽』 1912.
釜山府, 『釜山府勢要覽』, 1921.
釜山府, 『釜山商工案内』, 1932.
釜山甲寅會, 『日鮮交通史』, 1916.
釜山府, 『釜山開港五十年紀念號』, 1926.
釜山府, 『釜山商工案内』, 1932.
釜山商工會議所, 『釜山商工會議所年報』, 1932.
釜山市, 『釜山の 商工業』 1965.
釜山市史編纂委員會, 『釜山市史』 1권, 1989.
소방청 훈령 제45호, 『화재조사보고규정』
朝鮮總督府 內務府土木局, 『朝鮮港灣要覽』, 1931,
釜山市, 『釜山の 商工業』, 1965.
朝鮮消防協會, 朝鮮消防, 第8卷 9月號 1926.
『朝鮮總督府統計年報』
소방청 훈령,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조. 2018. 4. 3.

2. 저서

- 加藤機三郎, 『光州消防二十年史』, 1933.
東亞經濟時報社,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21.
栢澤仁助, 『釜山港勢一斑』, 日韓昌文社, 1905.
李如星, 金世鎔, 『數字朝鮮研究』 제5집, 1935,
오영섭, 『서울災害史』,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13
田邊無聲, 『大田消防の沿革』, 1933.
田邊無聲, 『大田消防の沿革』, 1933.
전성현, 『식민자와 조선 - 일제시기 大池忠助의 지역성과 ‘식민자’로서의 위상』,
『한국민족문화』 49, 2013,
최덕수, 『조약으로 본 한국근대사』, 열린책들, 2010,
秋山忠三郎, 『群山消防組發達誌』, 群山消防組, (1927).
홍순권의, 『일제시기 재부산일본인사회 사회단체 조서보고』, 선인, 2005.
_____, 『부산의 도시형성과 일본인들』 선인, 2008,

3. 논문

- 金容旭, 『釜山築港誌』, 『港都釜山』 2, 1963.
- _____, 『日帝强占期 釜山の 行政組織과 日帝의 統治機構』, 『港都釜山』 15, 1998, 18쪽.
- 강경규, 『『일제하 경성소방서의 설치와 운영』, 수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김인호, 『고종순종시기 恩賜제도 운영실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6, 2018.
- _____, 『일제강점기 부산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 『부산근현대사산책』, 국학자료원, 2017.
- 김의환, 『개항후 부산일본전관거류지 설정에 관한 연구-부산시 형성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한일연구』 2, 한일문제연구소, 1973.
- 김철권, 『開港期 · 日帝强占期の 釜山 市街地 變遷에 관한 研究』, 『東亞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8,
- 金奉三, 『일제시대 군산의 화재발생과 소방활동』,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金相旭, 『韓末·日帝强占期(1899~1929) 木浦消防組의 結成과 活動』, 『歷史學研究』 34輯, 2008.
- _____, 『일제강점기(1910~1939) 공설군산소방조의 결성과 활동』, 『전북사학』 50輯, 2017.
- _____, 『일제강점기(1910~1939)대전소방조의 결성과 활동』, 『한국민족운동사학회』 96, 2018.
- _____, 『일제강점기 소방기구의 변천과 역할』, 『한국행정사학회』 43, 2018.
- 박봉선, 『인구문제와 인구정책』 (한얼문고) 1972.
- 박철규, 『1914년 전후시기 부산지역 유력일본인』, 『부산의 도시형성과 일본인들』, 선인, 2008.
- 이재선, 『일제 강점 전반기(1910~1925) 消防運營體系의 변화와 消防署의 설립』, 서울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14.
- 元榮錦, 『韓末 · 日帝强占期 群山消防組의 組織과 活動』, 群山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6.
- 염복규, 『日帝下 京城 지역 소방 기구의 변화 과정과 활동 양상』, 『서울학연구』 49, 서울시립대학교서울학연구소, 2012.
- 장선화, 『1920~1930년대 부산의 공업발전과 도시구조의 변화』, 동아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998.

차철욱, 「일제강점기 부산도시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 『향도부산』 23, 2007.

홍순권, 「일제시기 부산지역 일본인사회의 인구와 사회계층구조」 『역사와 경계』
51, 2004.

투고일 : 2019. 06. 08. 심사완료일 : 2019. 07. 01. 게재확정일 : 2019. 07. 25.

| Abstract |

Fire That Broke Out in Busan and Activity of the Busan
Fire Fighting Servic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Focus on 1920s and 1930s

kim, Sang-Wook

As ports were open in 1876, Busan grew to be one of the best trade ports and the second best city in Korea. The population of Busan increased and the town expanded, which caused a number of fires to break out. Japanese people who resided in Busan had much more financial damages due to fires in 1920s than Korean. They were engaged in diverse manufacturing business areas including rice polishing and food industry. Therefore, their damages due to fire also increased.

As damages caused by fire increased, the Busan Fire Fighting Service were active to deal with it. First, its organization was reorganized. The Busan Fire Fighting Service expanded the fire fighting equipment and reorganized the organization into five departments under the headquarter. Standing fire fighters were arranged for each of departments. However, the executive officers accumulated wealth by illegal means in the process of expanding fire fighting equipment with fees Busan people donated to celebrate its beginning ceremony. It led to resignation and arrest of the officers of the fire fighting service and provided a chance to change the personnel system of the service.

Second, fire prevention drills to respond to fire was reinforced. The prevention activity was designed to control fire. The beginning ceremony was an important event of the service that was held in the beginning of a

new year. The fire fighting service pledged to be positively engaged in its activity through the beginning ceremony. The fire fighters exercised drills using motor pumps on spring and fall fire drills. On the Fire-fighting day that was exercised every winter, fire precaution campaign was exercised.

When a fire broke out, the Busan Fire Fighting Service quickly controlled it. The Busan Fire Fighting Service detected fire using watchtower supervision system, public telephones and fire alarms. When a fire was found, standing fire fighters turned out to control it on the motor pump. Then, its activity was usually made in residence of Japanese people and updated equipment was arranged there.

key words: fire fighting headquarter, beginnig ceremony fee, fire fighting equipment, fire fighting day, spring and fall fire drill, fire alarm